

생산성이 낮은 닭을 과감히 도태시키는 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 정리/김동진 기자



△ 문일농장 이문빈 사장

본고는 '69년 상계동에서 1,200수로 채란업을 시작한 후 현재 경기도 양주에서 산란계 15만수, 육성계 4만수 규모로 채란업을 경영하면서 근 30여년간 양계에만 몸을 담아온 문일농장 이문빈(67세) 사장을 만나 최근 환율상승과 소비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장의 최근 동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최근 채란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율상승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 모든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사료가격, 약품가격, 기름가격, 난좌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높아져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농장(문일농장)의 경우 무창계사 1개동에 35,700수규모의 계사 2개동을 신축하면서 리스를 빌려쓴 것이 아직도 20여개월의 상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94년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1,060만원(환율 800원대)을 상환하던 것이 '96년 환율이 900원대 이후에는 1,200만원을 상환하게 되었고 앞으로 환율상승과 환차손의 영향으로 400여만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계란 상인들도 자금압박으로 현금동원에 한계를 느끼다보니 계란값을 갚지 않은 채로 부도를 내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한 현상이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료가격 상승과 사료수급 불균형 속에서 농가경영 실태는?

▲ 우리농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하여 20%의 생산을 이미 줄인 상태인데 환율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많은 농가들이 최악의 사태로까지 예상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채란업을 해오며 이같이 어려운 시기는 처음 경험하는것 같습니다.

과거 음식점 등에서 생선머리를 수집해 끓여서 사료를 대주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 때는 질병도 없었고 노력에 따라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는데 무책임한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업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리스자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몰려있는게 현실입니다.

사료가격 상승은 환율상승과 맞물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지난 10~13일 사료가격이 일제히 오르려다 동결이 된 것도 농가입장에서 한편으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상승이 되지 않은 만큼 사료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게 모든 사육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미 일부농가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난각이 나빠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IMF시대에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 사료가격 50%, 약품가격 90%, 난좌가격 50%, 기름값 60%가 각각 인상된 상태에서 생산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예전에 재래닭 6~7만수를 사육할 때는 90% 이상의 피크를 20일 이상 끌었는데 무창으로 전환하고 나서부터는 80%정도를 넘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일은 더 많아진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 모든 여건은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란피크시 직접 사료투약기를 마련하여 영양보충을 나름대로 연구하여 보완을 했는데 지금은 규모도 커졌고 사료원료 또한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세상이 다 보니 이런 일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산비 절감요인을 찾아보면 없는것도 아닙니다. 농가자체에서 각자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겠지요. 적정규모를 우선 생각해야 되겠고 썸썸이도 각자 조금씩만 줄여나가야 하며 여건이 허락되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사료비용 절감방안을 적용시켜보는 것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최근 계란대금이 현금결제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구조개선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게 있다면?

▲ 우리농장도 상인들과 어려움을 분담하며 가능한한 현금결제로 유도를 하고 있으나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료는 현금결제로 해주면서 계란자체는 아직도 어음이나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 모든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초창기에는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여 상인으로 부터 오히려 선금을 받고 계란을 출하하여 왔으나 현재는 과잉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용 소비는 물론 군납 소비도 감소되고 있어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

'70년도 청량리에서 한국계우회를 운영할 때부터 나타난 유통의 불합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유통의 관행을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생산자들이 입지를 모아 생산을 줄여나가고 소비창출을 모색해 간다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농장은 영양란으로 계란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고시가격에서 보통 13원을 다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아직도 결제는 1~2달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산자들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17원에서 많게는 20원까지 다운을 한다는 소리가 들릴때 마다 생산자들이 자기무덤을 파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과잉생산이 계속될 경우 저난가 시대를 피할 수 없는데 이에대한 대처방안은?

▲ 한마디로 산란율이 65%이하되는 닭들은 무조건 도태를 시켜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모두 살기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데 현재 제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체가 안되니까 계란납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가에서 실감을 덜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가격하락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때 3월부터는 말로만 듣던 구조조정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주지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농장의 경우 저가시대가 도래하고 경영 압박이 계속될 경우 생산성이 낮은 닭부터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80% 이상되는 성적이 우수한 닭을 도태시킨다는 것은 농장으로서나 국가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닭들이 없어져서는 안된다는게 기본입장이기때문에 최소화 경영을 해가며 기다리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채란업 활성화방안은?

▲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을 소비에 맞게 유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율경쟁 체제에서 농가 스스로 생산을 조절해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양계협회나 기타 조직체를 구성하여 강력한 통제기구를 만들어 소비에 맞는 적정생산을 유도해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채란업을 아직도 투기성을 갖고 경영하는 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거나 농장주가 계사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관리자에게만 맡기는 농장이 있다면 재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자기농장의 분수에 맞는 수수를 파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길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